

MEG, 2003년 영광 재현할까?

내수가격 6만원 인상 예상 ... 에틸렌 폭등으로 원재료 가격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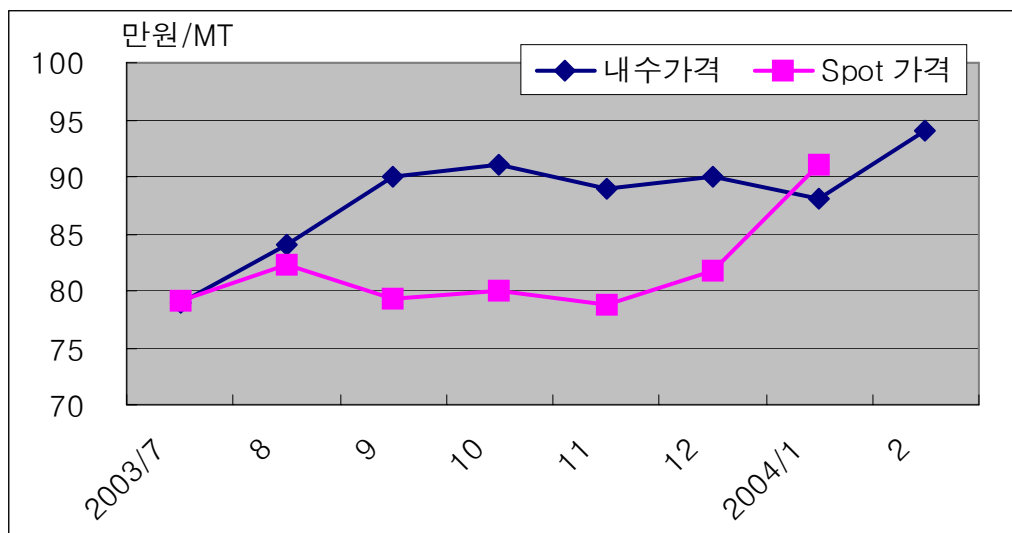
MEG(Monoethylene Glycol)는 2월 Asia Contractive Price가 톤당 750달러로 전월대비 50달러 급등함에 따라 MEG 내수가격도 톤당 6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MEG는 최근 에틸렌(Ethylene) 가격폭등으로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분석되며, 특별한 플랜트 트러블에 의한 가격인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ACP는 사우디의 Sabic과 미국 Dow Chemical에서 매월 발표하는 MEG 계약가격으로 2003년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강세에도 불구하고 Dow Chemical의 정책적인 영향을 받아 Sabic이 발표하는 CP가 톤당 5-10달러 낮게 발표되고 있다.

MEG 내수가격은 양사에서 발표하는 계약가격 중 낮은 것을 채택하며, 2003년부터 주로 Sabic에서 발표하는 계약가격에 의해 내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

MEG 가격추이(2003. 7 - 2004. 2)



MEG Spot 가격은 CFR Korea 톤당 830달러에 거래됐는데, MEG 무역상은 중국구매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일부 무역상들의 가격조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MEG 가격은 중국의 수요가 파악되는 2월 중순이후 정확한 시장상황이 파악될 것으로 분석된다.

MEG 생산기업은 현대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삼성Atofina가 있으며, SK네트웍스는 Sabic 제품을 한국 미쓰이 상사는 Dow Chemicals의 MEG를 국내 공급하고 있다.

MEG ACP는 2003년 12월 톤당 710달러에서 2004년 1월 700달러로 10달러 하락했으나 1월 에틸렌 가격이 FOB Korea 톤당 99달러 폭등함에 따라 2월에는 750달러로 상승했다.

2003년 MEG의 ACP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에틸렌 가격강세가 지속되면 추가 급등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민 조사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11>